

장마 여파 가격 급등... 여름과일 사먹기 겁난다

포도·자두·복숭아 수확량 줄어 최고 35% 올라

수박은 출하량 많아 전년보다 3~5% 저렴

역대 최장기폭을 세운 올해 장마 탓에 포도·자두·복숭아 등 대표적인 여름 과일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과일 사먹기가 겁난다는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가락시장에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거래된 포도 대표 품목인 캠벨(5kg·특품)의 하루 평균 판매가격은 4만262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

만1659원보다 무려 35%나 상승했다.

이는 주로 캠벨 포도가 생산되는 남원지역의 재배농가들이 지난 3~4월 냉해 피해를 입어 출하를 미루고 있는 데다 물량도 지난해보다 5~10%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기상을 부리는 열대야 영향으로 씨알이 작고, 당도가 낮은 물량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좋은 상품

품목	가격	전년 동기비
캠벨 포도	4만2620원	전년 동기비 35% 상승
후무사 자두	6만6014원	전년 동기비 16% 상승
백도 복숭아	2만5400원	전년 동기비 25% 상승

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두 역시 지난해 이맘때보다 16%나 올랐다.

후무사 자두(10kg·특품) 가격은 6만6014원으로 작년 동기(5만6870원)에 비해 1만원이나 뛰어올랐다.

가격이 강세를 보인 것은 불철 냉해로 과실이 정상으로 자라지 못해 전체 수확량이 지난해 대비 10% 감소한 탓이다.

복숭아 가격도 주산지인 감곡·장호원·음성 등 충청 지역에서의 장마와 극지성 호우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거래가격이 작년보다 25%나 올랐으며 휴가 등 소비 수요가 발생하면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작년보다 과일 출하량은 많지만 더위와 폭우 탓에 씨알이 작거나 당도가 떨어지는 등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상·특품의 가

격은 당분간 높은 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수박 가격은 막바지 침에 접어들며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박의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은 데다 흑과 등 다양한 대체 수박이 나오면서 장마에도 가격이 영향을 덜 받았다. 지난해보다 3~5%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주부 김모(41)씨는 "가족들 모두 과일을 좋아하는데 막상 살려면 높은 가격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가격이나 식탁물가가 올라 어려운 상황에서 가게에 큰 부담이다"고 말했다.

“사고 싶은 차는 디젤·중형차”

SK엔카 온라인 설문

디젤차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가솔린차를 사고 싶다는 사람보다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매매기업인 SK엔카(대표 박성철)는 지난달 성인 남녀 527명을 대상으로 '내 차 바꾸고 싶다! 나의 차량 구매 계획은?'이란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싶은 차의 연료 유형을 물은 결과 디젤이 52.2%로 절반을 넘었고, 가솔린이 27.1%, 하이브리드가 13.3%였다. LPG(액화천연가스)와 전기도 각각 5.1%, 2.3%였다.

구입하고 싶은 브랜드로는 현대(25.4%)가 1순위에 꼽혔다. 이어 기아(17.4%), 폭스바겐(12.1%), 쉐보레(8.0%), BMW(6.8%), 메르세데스-벤츠(5.9%), 르노삼성(5.5%), 아우디(4.0%), 쌍용(3.8%), 랜드로버(2.3%) 순이었다.

국내 완성차업체 브랜드를 선택한 사람이 60.0%, 수입차 브랜드를 지목한 사람이 40.0%로 6대 4의 분포를 보인 것이다. 이는 현재의 시장 점유율과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수입차에 대한 잠재 수요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매 가능한 차량의 가격대를 묻는 질문에는 뜻밖에도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이 34.9%로 가장 많았다. 국산차로 치면 그랜저나 K7, 알페온급의 대형차에 해당하는 가격대다.

이어 '2000만~3000만원'이 26.0%, '1000만~2000만원'이 12.7%, '4000만~5000만원'과 '5000만~6000만원'이 각각 5.3%였다.

중형차와 SUV에 대한 수요가 엇비슷한 셈이다.

중형차(36.4%)·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31.1%)·중형차(13.7%)·대형차(9.5%)·경·소형차(8.0%) 순으로 답이 나왔다.

중형차와 SUV에 대한 수요가 엇비슷한 셈이다.

지역 기여 창업기업 발굴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공모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이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창업 뒤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 진단 및 해결을 돕는 한편,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연대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기업은 6개월 동안 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5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되며 6개월 경과 뒤에는 사업 수행 평가를 통해 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는다.



다음달 6일 개막하는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관이 7일 오후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광장에 문을 열었다. 정순이 광주미협 회장(사진 왼쪽부터),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가운데)가 디자인비엔날레에 전시될 작품인 송민훈 디자이너의 'LED 테라피-동동 컬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신세계, 디자인비엔날레 홍보 팔 걸었다

개막 한달 앞두고 전시 작품·내용 소개 '홍보관' 개관

광주신세계가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한 달여를 앞두고 홍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오는 9월 5일까지 31일간 운영하는 이번 홍보관은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작품과 내용을 소개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나가기 위해 개관을 모으고 있다.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관'에서는 '거시기, 머시기'(Anything, Something)라는 전시 주제로 꾸며지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소개, 다양한 디자인 작품의 전시 미리보기, 다양한 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광주 이미지 디자인하기'라는 이벤트에서 매주 50명을 추천해 4주 동안 모두 200명에게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을 제공한다.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이날 열린 개관식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관이 디자인 문화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들과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 문화행사인 만큼 광주신세계를 찾는 시민들에게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는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내년 2월 폐지

가계부채·카드빚 돌려막기 줄이기로

가계부채와 카드빚 돌려막기를 줄이고자 카드사들이 올해 4월부터 차례로 축소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내년 2월 전면 중단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내년 2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하고 고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은 이미 올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2~6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다.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바로 갚기 어려운 서민층이 이용했다.

하지만 할부결제가 무분별한 현금서비스를 부추겨 가계부채를 늘리고 서민층의 카드빚 돌려막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계를 찾는 서민들에게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는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카드 부가서비스 항목에 포함돼 있어 고객들에게 중단 계획을 충분히 알리고 내년 2월부터 할부 전환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중단한 카드사들은 새 수익원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지속 가능한 부가서비스를 찾아 없으면 기존 수익원도 줄여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 은행·보험과 마찬가지로 카드사들도 순이익 추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도 현금서비스 부문의 성장도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17조4230억원으로 2009년 대비(분기별 실적 기준) 최소치를 기록했다.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도 2009년 25.9%에서 지난해 22.8%로 3.1%p 낮아졌다.

시원하고 깨끗한 소리-소리שמ보청기

microtech SORISEM 소리שמ보청기

소리שמ보청기 창립 20주년 기념

보청기 대축제

2000만원의 경품을 잡아라~

1등: 500만원대 고급형 보청기(3대)

- Sound Lens 110-안보이는 고급형 보청기
- Focus 50XP-고급 맞춤형 보청기
- WI Series 110-무선 맞춤형 보청기

2등: 고급형 보청기(3대)

- XINO TINNITUS 90-이명 보청기
- ARIES PRO-맞춤형 보청기
- XPERIA-기성형 보청기

3등: 보청기 할인쿠폰(참가자 전원)

- 보청기 배터리 할인 쿠폰
- 보청기 수리비 할인 쿠폰
- 보청기 구입시 30~50% 할인 쿠폰

참가방법: <소리שמ보청기> 인터넷홈페이지 www.sorisem.co.kr 에 방문하셔서 보청기대축제 경품행사에 참여 하시면 됩니다.

행사기간: 2013년 8월 1일~10월 31일 까지

경품 교환장소: 소리שמ 지역 센터 (경품 수령시 제세 공과금은 없습니다)

고급형 보청기도 타고, 할인 쿠폰도 받고!
<소리שמ보청기> 창립 20주년 기념 보청기 대축제-

<소리שמ보청기>에선 창립 20년 동안 보내 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000만원 규모의 경품과 보청기관련 할인 쿠폰을 준비하여 보청기 대축제를 개최 합니다. 소리שמ보청기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경품당첨의 행운을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호남권		광주남구센터 062-673-8070		광주동구센터 062-234-5853		목포센터 061-284-4815		순천센터 061-744-5013		익산센터 063-841-1149		고창센터 063-561-0603		여수센터 061-684-2800																																		
서울권	중로센터 02-2269-9911	강남센터 02-572-6662	대명센터 02-859-2750	종로센터 02-744-7558	홍제센터 02-725-5869	강서센터 02-2658-0023	경기권	강북센터 02-945-2393	구리센터 031-555-2700	평촌센터 031-389-6666	부천센터 032-322-7782	수원센터 031-252-3992	동인천센터 032-764-1411	경기권	남인천센터 032-421-0001	파주센터 031-946-6464	분당센터 031-704-5255	일산센터 031-923-0339	강화센터 032-933-2565	강원권	원주센터 033-743-0533	강릉센터 033-641-8129	춘천센터 033-243-9969	동해센터 033-532-4171	횡성센터 033-344-5233	충청권	대전중앙 042-931-4121	대전중구 042-221-4260	공산센터 041-754-8484	괴산센터 043-832-2364	진천센터 043-536-6003	청주센터 043-225-0038	영남권	대구성서 053-526-9555	대구중구 053-253-6868	마산센터 055-245-7898	부산서면 051-816-9771	진주센터 055-741-1252	김해센터 055-324-2789	영남권	창원센터 055-288-8088	울산센터 052-269-2900	고성센터 055-674-7030	창원서면 055-331-3665	창원동면 055-533-9022	진주거성 055-755-5668	제주권	제주센터 064-753-5347

소리שמ보청기 가맹점 문의 02-499-7300